

1등급 강자 '클린업조이', 60kg 극복할까

(부담중량)

8일 렛츠런파크 서울 '제 10경주'

1800m이상 장거리경주 압도적 수상경력 '빛의왕자' '스페이스포트' 등 우승 대항마



전형적인 추임마 '클린업조이'. 1800m 경주에 두 번 출전해 모두 우승하는 등 장거리에 강하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1등급 경주의 강자 '클린업조이'가 다시 한번 시상대 꼭대기에 설 수 있을까.

1등급 경주(1800m, 연령오픈)가 오는 8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제10경주 펼쳐진다. '클린업조이' '빛의왕자' '스페이스포트' 등 렛츠런파크 서울을 대표하는 강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산지와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출전할 수 있어 '강자 중의 강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력한 우승 후보는 '클린업조이'(미국, 거, 5세, R116)다. 전형적인 추임마로서 후반 탄력이 뛰어나 장거리에 강한 경주마다. 지난해 12월 펼쳐진 '그랑프리'(G1, 혼혈 3세 이상, 2300m, 레이팅오픈) 대상경주에서 '볼드킹즈', '금포스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랑프리 대상경주 이후에 펼쳐진 모든 1등급

경주에서 연이어 1위를 거머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펼쳐진 1등급 1800m 경주에서는 '빛의정상', '마이데이' 등 이번 대회 경쟁자들을 8마신 이상 크게 따돌리며 우승을 차지

하기도 했다.

데뷔무대를 제외한 모든 경주에서 5위 이내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안정적인 기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또한 2014년 10월 이후 대부분 1800m 이상 장거리 경주에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장거리 경험도 풍부하다. 1800m 경주에는 두 차례 출전, 모든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레이팅도 116으로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부담중량도 60kg으로서 압도적으로 높아 이번 경주는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업조이'에 이어 관심을 끌고 있는 강자는 '빛의왕자'(미국, 수, 6세, R97)다. 데뷔 이래 7번의 경주 출전 만에 1등급으로 승격했을 정도로 기본 기량이 뛰어나다. 스피드와 힘을 고루 겸비해 선행, 선입, 추입 전개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 2013년 4월 이후에 출전한 경주 대부분이 1800m 이상 장거리 경주인만큼 경험도 풍부하다. 이 중 1800m 경주에는 지금까지 7번 출전하였으며, 우승(3회)과 준우승(1회)을 4회 달성했다. 지난해 약 반년간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2회 연속 입상(2위)

를 기록하고 최근 3월 1800m 경주에서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경주에서도 기대치가 높다.

'스페이스포트'(미국, 수, 6세, R93)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형적인 추임마로서 중장 거리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2015년 4월 이후 출전한 모든 경주(12개)에서 5위 이내의 성적을 기록 중일 만큼 기량도 안정적이다. 2015년 11월에 1등급으로 승급한 이후 3차례 1800m 경주에 출전했으며 그중 2번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해당거리에 대한 자신감도 높다. 참고로 데뷔 이후 1800m 경주에는 12번 출전, 우승(3회)과 준우승(4회)을 7번 기록했다. 부담중량도 51kg으로 출전마중 가장 낮아 여러모로 능력 발휘에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2015년에 출전한 10개의 경주 중 단 한차례를 제외한 모든 경주에서 5위 이내 성적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인 실력의 소유자 '마이데이'(한국포, 암, 6세, R97)와 스테미너와 경험이 풍부하고 장거리 경주에 특화된 '황금탑'(미국, 수, 5세, R94)도 주목할 만한 기대주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말(馬), 예술과 만나다

| 최용훈 '차밍걸-101번의 도전'



<집성목에 우레탄 코팅, 95x265x225(H)cm, 2015>

101번의 도전을 상징하는 나무판을 포개어 만든 작품입니다. 2008~2013년까지 한국 최고 기록이라는 총 101회 경주에 출전했으나 단 1승도 못 올린 풀피 경주마 '차밍걸'이 작품의 실제 모델입니다. 초라한 성격이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사랑받았던 '차밍걸'의 의미 있는 도전을 나이테처럼 재미있게 표현해냈습니다. 렛츠런파크 서울 김정희 화에서

말의 신발 '편자'...말굽 장착 과정 '장제'

홍당무의 경마오디세이

| 편자와 장제의 모든 것

편자, 가법고 내구성 좋은 알루미늄 소재 장제사는 말 모양·체중·발 길이까지 신경

야생의 말들은 튼튼한 발굽을 지니고 있어 험난한 지형을 거뜬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가축화된 말들은 빠른 속도를 내고, 무거운 짐을 짊어주어야 원래 지니고 있는 발굽만으로는 이 같은 일들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그 결과 인간은 사람의 신발처럼 말들의 발굽에 쇠붙이를 대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말들이 신는 편자이다.

말의 발굽은 '발뺨'과 '주상골', '짧은발뺨'이 있으며, 발굽 안쪽 가장 깊은 곳은 제저라고 하는데, 제저 안쪽에는 영어 알파벳 'V'자 모양의 제저라는 부분이 있다. 이 제저는 지면으로부터 전달되어오는 충격의 흡수장치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다. 말굽의 겉 부분은 단단하지만 그 굽의 안쪽은 매우 섬세한 구조로 되어있다. 말의 발굽은 발굽의 앞 끝을 나타내는 '첨부', 양 옆을 나타내는 '측면부', 그리고 발뒤꿈치인 '뒤꿈치부'로 나뉜다. 발굽에 덧대는 편자 역시 발굽에 맞닿는 부위에 따라 해당부위의 이듬과 동일하게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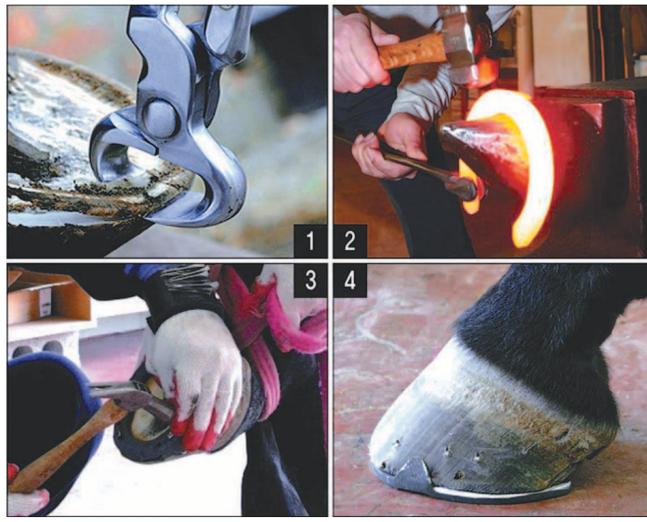
● 말의 신발 '편자',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편자의 종류는 다양하다. 경주마들에게 사

용하도록 매우 가볍다는 게 장점이다. 보통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 튼튼하면서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은 다양한 크기의 편자가 공장에서 만들어져 납품되는 게 보통이며, 신발 사이즈처럼 규격화된 사이즈별로 다양한 기성품들이 만들어진다. 일부국가에서 경주마들에게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신소재인 두랄루민 편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격경쟁력 면에서 떨어져 대부분의 경주마들은 알루미늄 편자를 사용한다.

경주마들 이외에는 보통의 철로 만들어진 편자를 사용한다. 알루미늄에 비해 무겁지만 내구성이 우수하다. 알루미늄과 달리 쉽게 변형하기 어려워 용광로에 달근 후 편자의 모양을 조절한다. 이외에 특수한 목적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편자도 있다. 예를 들면 빙하나 눈길을 달랠야 하는 말에게 신기는 '빙상편자'나 다리의 경직이 달라 편자의 두께로 그 차이를 보전하는 치료용 편자 등의 경우 모두 특수편자로 볼 수 있다.

● 편자를 말굽에 장착하는 장제, 고도의 기술 필요

편자를 말의 굽에 장착하는 일은 장제(裝蹄)라고 부른다. 장제사는 말의 모양과 체중을 분산해내는 형태를 판가를 할 수 있는 균형, 그리고 말의 길이를 정확하게 판단해 적절한 편자를 말에게 신겨준다. 장제의 과정은 크게 탈철과 삭제, 조정과 맞붙, 그리고 조이기로 나뉘볼 수 있다. 탈철은 말 그대로 기존에 착용한 낡은 편자를 떼 내는 일이다.



'말 편자 장인' 김태연 씨가 편자를 교체하는 과정. ① 말발굽에서 현 편자를 떼어낸다. ② 말에 맞는 편자를 새로 만든다. ③ 새 편자를 말에게 달아준다. ④ 새 편자를 신은 말의 발굽. 사진제공 | 김태연 씨

낡은 편자를 떼내고 나면 불규칙적으로 자라난 발굽을 잘라내는 삭제작업을 진행한 다. 손톱깎기와 비슷한 트리머라는 장비로 먼저 잘라낸 후 체중이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굽줄로 갈아내어 평평하고 균형이 잡히도록 조정한다. 사람이 손톱이나 발톱과 마찬가지로 신경이 없어 삭제과정에서 통증을 느끼지는 못한다.

음은 마필에게 맞는 제품의 편자를 발굽에 직접 대고 쇠파치로 두들겨서(쇠편자의 경우는 달궈서) 발모양에 맞도록 조정한다. 발굽과 새 편자가 잘 들어맞으면 편자를

고정하기 위해 못을 박는다. 못을 박는 작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신경이 없는 발굽부분을 벗어나 신경을 건드리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숙달된 장제사라 하더라도 이 과정을 가장 신중하게 진행한다. 또한 못질 과정에서 장제사 본인도 부상의 위험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대개 5개에서 7개 사이의 못을 박는데, 못을 박고 난 뒤 튀어나온 못을 다시 잘라내고 튀어나온 홈도 갈아 굽과 일치하게 만들면 장제업무는 끝난다. 경마칼럼니스트

박태종 기수 2000승 마케팅

렛츠런파크서울, 팬사인회·국밥 2000그릇 행사 준비

1998승, 이제 2000승에 단 두 번만 남았다. 한국 경마의 전인 미담 2000승 달성을 눈앞에 둔 박태종 기수(사진). 그는 51세라는 나이 여전히 청춘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맹활약 중이다. 2009년 한국경마 최초 1500승 달성, 한국경마 최초 1만 기수에 이어 2000승에 도전하고 있다. 이제 2승만 남겨놓았다. 그가 가는 길은 곧 한국경마의 역사이기도 하다.

대망의 2000승 역사는 5월 중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3월과 4월 각각 5승, 4승을 달성한 점을 감안하면 5월 중 2승은 때여 노는 당상이다.

박태종 기수의 '2000승 달성'을 기념해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렛츠런파크 서울은 박태종 기수의 2000승 달성에 맞춰 특별시상식을 준비했다. 다만 2000승 달성 시점 예측이 곤란한 관계로 기록달성일 다음 주 일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장소는 렛츠런파크 서울 관람대 앞 시상대다. 현명환 회장을 비롯해 경마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등 한국마사회 임직원과 유관단체대표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날의 주인공인 박태종 기수에게는 포상금과 트로피, 황금채찍(한국경마기수협회 제작) 등이 수여된다. 또한 15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팬들을 위한 보답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시상식 당일 고객 50명을 대상으로 사운몽 증정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렛츠런파크 서울 출발정원에서는 박태종 기수의 팬사인회가 진행되며, 고객들에게 국밥 2000그릇도 함께 제공한다.

박태종 기수 기념상도 제작·설치된다. 올해 연말까지 제작해, 렛츠런파크 서울 놀라운지 또는 서울 기수협회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연재호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토요경마 출마표 | 7일

★ 최우수 ○ 우수 ◎ 양호 △ 상대 ※ 도전
출마표는 한국마사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상경쟁: 경마문화(석출), 유준산, 정원호

서울 경마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제 1경주 (1300M) 국6 별정C 일반 발주:10:50										
1	천왕봉	수	55.5	송재철	최영주	선입	보통	※	△	◎
2	장재철	거	56	임란	박희철	선행	보통	◎	△	※
3	버디쇼	암	51.5	정정희	박태종	추입				
4	백미어	수	56.5	문세영	김동철	선행	우수	★	★	◎
5	순영용	수	55.5	최원준	지용철	추입				
6	무매마미	암	53.5	최원준	박흥진	추입				
7	지상정복	거	56	윤태혁	김동규	선입	양호	△	◎	○
8	골베니르	암	53.5	안호리	배대선	선입	양호	○	○	★
제 2경주 (1000M) 국6 별정C 일반 발주:11:15										
1	그레이트	암	53.5	최원준	서범석	추입				
2	골드오일	암	53.5	황순도	박재우	선행	보통	△	※	◎
3	트리플릭	수	55.5	유승환	김윤철	추입				
4	노블레스	수	55.5	최원준	안병기	선입				
5	선오	암	53.5	문정균	하재영	추입	보통			△
6	헤일로드	암	53.5	이동국	박윤규	선행				※
7	해신	암	53.5	박윤준	양희진	선행	양호	○	○	△
8	이호제이든	수	56.5	김동수	김동균	선입	우수	◎	★	★
9	월드마크	암	54.5	문세영	박종근	선입				★
10	빅스카이	수	55.5	이찬호	김동철	자유	양호			◎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제 3경주 (1000M) 국6 별정A 일반 발주:11:40										
1	수안스타	암	54	단율준	홍대우	선입				△
2	골드스타	암	54.5	최원준	최영주	추입	보통	△	※	
3	레전드걸	암	51	하정훈	박종근	선행				★
4	골드피크	수	56	박태종	김학수	추입	양호			◎
5	클라머스	거	56	박태종	박찬서	선입				
6	클로이케이	거	56	김철호	임봉춘	추입				
7	육지비행	암	54.5	패트릭	신상영	자유				○
8	미라클벨리	암	54	페로비치	박윤규	선입	보통			△
9	모나스틀	암	54	이어나	정지은	추입	양호			○
10	무한길러	암	54	유승환	김윤철	선행	우수	★	★	◎
제 4경주 (1200M) 국5 핸디캡 일반 발주:13:00										
1	백두령	거	55	문세영	이신영	선입	우수	★	※	
2	새영신	암	52	송재철	최상식	선행				○
3	여주구리	암	53	함원식	김양선	선입	보통			※
4	와일드키티	암	51	정정희	유재길	선입	보통			△
5	히트포인트	수	57	이혁	서홍수	선입	양호			◎
6	선스틀	암	51.5	이금주	손영표	자유	양호			○
7	천리	암	55	부민호	황영원	선행				★
8	동백빛	암	53.5	박태종	박흥진	추입				△
9	스트롱리브	암	54.5	황중우	심승태	추입				
10	코메리마	암	51	조재로	배준주	자유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11	에르그래미	수	56.5	김동수	안병기	선행				★
12	경복족주	수	56	김철호	배대선	추입				◎
제 5경주 (1300M) 국5 핸디캡 일반발 발주:13:50										
1	공의결연	암	53.5	이상혁	송문길	선입				◎
2	쏘아리여왕	암	54.5	이준철	김대근	자유	보통	※	※	△
3	체리피커	암	53	김동수	심승태	추입				
4	셀비그레아	암	53.5	이해동	김동균	선행				
5	프랜차이즈	암	53	송재철	서인석	선입				
6	비키리아미	암	53.5	유승환	김윤철	추입	우수	◎	★	※
7	보내블루	암	53.5	최병현	우창구	추입	양호			◎
8	보라군	암	53	이혁	정호익	선입				○
9	마법탄환	암	51	정정희	유재길	선입	양호			○
10	큐피트피크	암	51	조재로	송문길	선행				○
11	쌍장기대인	암	54	문세영	최용구	선행	보통	★	△	★
12	행운누리	암	57	이기희	곽영진	선행				
제 6경주 (1400M) 국5 핸디캡 일반 발주:14:40										
1	오션블루	암	51	단율준	박태종	선입				△
2	미스터메이	거	56	박태종	우창구	자유	보통	★	△	★
3	드림엑스	거	57	송재철	신상영	선행	양호			◎
4	쌍둥이	수	54.5	함원식	김양선	선입	양호			◎
5	광속	수	54.5	문세영	양희진	선행	우수	◎	★	※
6	천일수	수	52	부민호	황영원	추입	보통			※
7	레드문	암	51	이금주	이신영	선입				
8	환희의연간	수	54.5	김혜선	김동수	추입				
9	제이메스킹	수	52.5	문정균	임봉춘	추입				
10	시야노수	수	53	페로비치	서범석	선입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11	키마	수	55.5	박병윤	하재영	선입				○
제 7경주 (1200M) 국4 핸디캡 평택수목오성 황성희 기원 발주:15:30										
1	은빛황희	암	52	페로비치	송문길	자유				
2	블레이즈스타	암	54.5	박현우	이관호	선행	양호	◎	◎	★
3	치르드레슬	수	56	박윤준	우창구	선입				※
4	윈드	수	54	최병현	김양선	선행				△
5	프랜차이즈	수	54.5	유승환	신상영	선입	양호	★	○	
6	캐리어	암	52	송재철	서인석	추입				
7	전광산이비	암	52	패트릭	최용구	추입				
8	리워드하이	암	52	김옥성	임봉춘	선입	보통	△	※	○
9	데케이	암	51.5	단율준	배대선	추입				
10	탑고대	수	53.5	이혁	유재길	추입				
11	포미션	수	55.5	조성근	송문길	선입	우수	※	◎	◎
12	대박이다	거	53	이상혁	이관호	추입	보통			△